

중탕 판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녹용」

『우리 사슴으로 만든 가야산 사슴녹용보, 녹용 1냥(10돈) 무료 증정』(경남 합천 농·축산업영농조합)

『사슴한마리, 사슴녹용 더 이상 비싼값으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녹용 10돈(1냥)을 무료로 드립니다』(천호한방)

『사슴 녹용 진(眞)골드 1박스만 구입하셔도 생녹용 20돈(2냥)을 드립니다』(전농축산영농조합)

『1박스값으로 1박스 더 드립니다. 그리고 녹용 10돈(1냥)을 무료로 드립니다』(동서제약식품사업부)

최근 일간지에 실린 문제의 광고 내용이다. 사슴 중탕을 구입하면 녹용을 무료로 준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일간지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등에서도 사슴중탕을 판매하며 「녹용무료증정」을 외치고 있다.

녹용 품위 크게 훼손

녹용이 마침내 「장사꾼들」의 상업적 수단으로 악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산삼과 더불어 보약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녹용의 품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거저 주는 것」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녹용을 생산하는 양록농가 입장에서 보면 분통터지는 일이고 관련회사를 찾아가 강력한 항의라도 해보고 싶은 불만이 쌓이고 있다. 녹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의약업소 종사자들 역시 매우 불쾌해 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가 현행 법상 별 하자가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광고 문구중 허위·과대 표기가 없는지,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가 아닌지 등 공정거래법 저촉여부를 살펴보는게

고작이다.

녹용은 축산물, 의약품, 식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축산물** = 축산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뿔」을 축산물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녹용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약으로 유통되는 「녹용」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물인 「뿔」을 생산하는 가축은 사슴 밖에 없어 곧 녹용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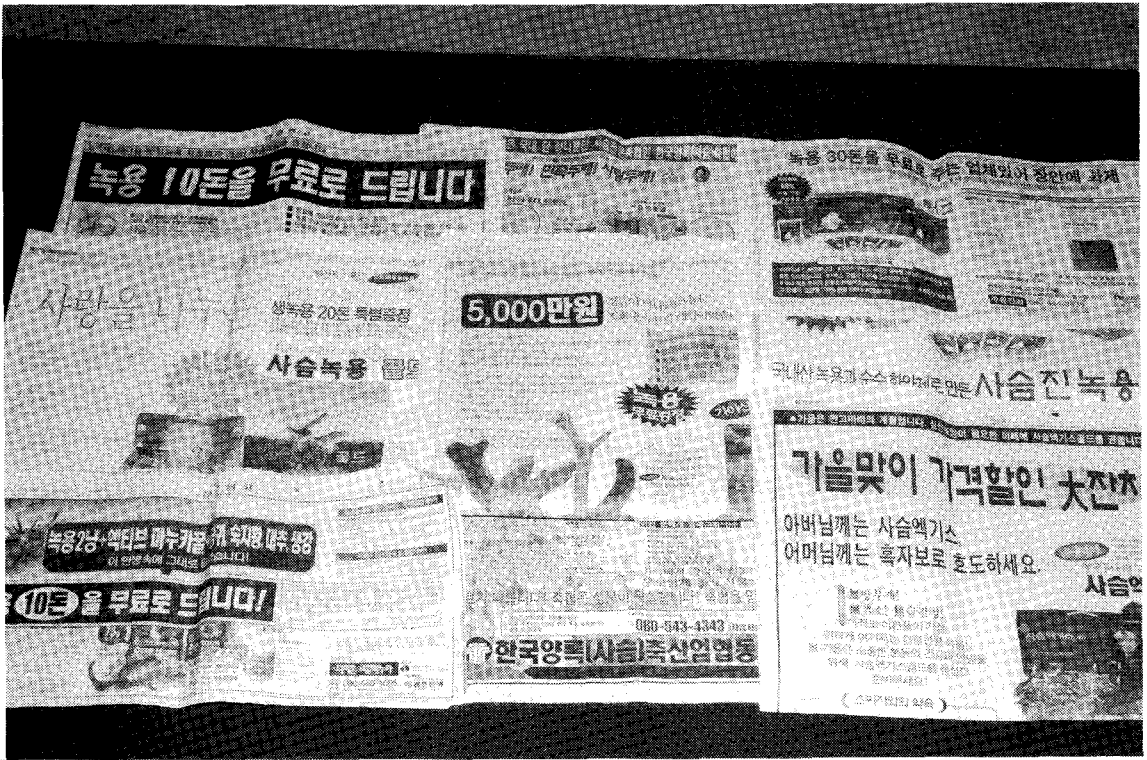
◇ **의약품** =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에 녹용이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녹용의 기원을 「이 약은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또는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e*(사슴과 Cervidae) 및 동속근연동물의 털이 밀생되고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뿔(幼角)이다」로 표기하고 있다.

◇ **식품** = 식품공전에 녹용이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주로 한약(보약)으로 인식된 녹용이 특히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으로 규정되어 녹용을 가미한 사슴중탕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수입녹용의 영향과 국산녹용의 증산으로 가격과 희소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작 사슴을 키우며 녹용을 생산하는 양록농가는 녹용값 하락 등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데 녹용을 이용한 업자들은 주머니를 불리며 재미를 보고 있다.

본래 사슴중탕은 농가에서 친인척을 상대로 이름아름 판매하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해 오다, 3년전부터 상업적으로 사슴중탕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



나고부터 농가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급기야는 시슴중탕에 녹용을 가미한 제품이 나오는가 했더니 「녹용무료증정」이라는 충격적인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원산지가 국산인 생녹용을 준다는 광고까지 튀어나왔다.

문란한 유통질서 바로 잡아야

녹용을 무료로 증정해도 시슴중탕을 판매하면 손해가 없는 뻔한 상술인줄 알면서도 녹용을 생산하는 농가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허탈한 내용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농가의 항의가 잇따라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허위·과대 광고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소비자보호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제품의 성분함량 조사를 의뢰하여 문제가 있는 업체는 철퇴를 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새해에는 관련법령을 적극 검토하여 문란한 시슴중탕의 유통 근절을 위한 법개정도 정부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식품회사에 중탕용으로 납품해 온 국산녹용의 판로를 걱정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나 이번 기회에 녹용유통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때다.

언제까지 국산녹용이 식품(중탕)용으로 유통되게 방치할 수는 없다. 수입녹용에 잠식당한 한의약 시장을 국산녹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녹용의 대량 소비처인 한의약 시장을 놔두고 양륙발전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식 발상에 다름아니다.

농가에서 축산물로 소비자에 직관하는 녹용을 제외하고는 전량 수매하여 한약화 할 유통기구 설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 엘크 녹용에 한해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엘크 녹용만 어느정도 한약화해도 일반 농가의 소비자 직관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녹용유통의 새 패러다임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녹용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한국양록의 미래 또한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